

작업치료(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습에 관한 연구

김진경, 박소연, 이택영, 강대혁
한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작업치료 임상 실습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임상 실습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에는 2004년 졸업예정자가 있는 11개의 대학(교) 중 2학기에 임상 실습을 실시하는 2개 대학(교)을 제외한 9개의 대학(교)(4년제 2개 학교, 3년제 7개 학교)의 작업치료(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250부 발송하여 213부 회수되었다. 조사기간은 2003년 10월 5일부터 11월 31까지였다. 분석은 회수된 설문 213부 중 202부를 가지고 카이제곱검정을 사용하였다.

결과 : 실습기관의 적합성을 포함한 실습환경에 관한 내용에서 응답자의 89.6%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생을 위한 프로그램의 정비와 지도 체계, 실습생 이용 시설과 설비에 대해 응답자의 20~30% 정도가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항목에서 80.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85%가 임상 실습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획득하였으나 51%는 임상 실습 중에 갈등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하였다.

결론 :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작업 치료학생들의 임상 실습이 좀더 체계화된 구조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작업 치료는 임상학문이므로 임상 실습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향후 임상 실습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교육, 임상 실습, 작업 치료, 학생

I. 서론

작업치료(학)과 교육과정에서 임상 실습은 실무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이 병원이나 복지관 등 실제로 자신이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작업치료사가 되기 위한 필수 교육 프로그램이다. 임상 실습은 실습생과

소속된 학교, 그리고 실습기관과 기관의 실습지도자들이 역할을 나누어 준비된 계획과 실습내용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임상 실습은 실습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상호 영향력을 미치며, 상호보완적인 역할수행을 통해 실습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박오장, 1978). 실습과정은 참관, 참여, 실제치료 등의 방법을 통

해 학생들의 임상 실습 경험을 심화 확대시킴으로써 임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피해를 최소화 시키며, 작업치료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다. 임상 실습을 통해서 실습생들은 작업치료사의 역할 수행은 물론이고 실습 지도사의 역할 수행 정도에 따라 졸업 후에 작업치료사가 되었을 때 그 역할의 인식과 수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친다. 그리고 임상 실습은 작업치료에 대한 단순한 기술 수련이 아니고 치료 전반을 파악하고 이해하게 되는 작업치료사 과정으로서의 첫 출발 이다. 또한 임상실습은 전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와 새로운 학습의 장으로 실습 현장의 실제 및 수직, 수평적 인간관계를 통하여 사회를 배우게 된다고 하였다(천은숙, 1995). 즉 임상 실습은 작업치료사가 되기 위한 형식적 과정으로서 뿐만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임상 실습에 대한 연구는 교육학과 간호학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주로 임상 실습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관한 연구(이현중, 2002), 유아교육실습지도교사의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조인경, 1993),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이숙자, 1980), 실습에 대한 스트레스(박현옥, 1981)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있으나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습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작업치료 임상 실습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습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실습에 대한 문제점에는 실습지도 과정의 구조적인 측면과 실습기관의 전반적인 문제점인 실습에 대한 책임 부족, 실습지도자의 자질부족, 실습지도자를 위한 기관의 배려 부족, 실습을 위한 준비 부족, 임상 실습에 대한 학교에서의 교육 부족 등의 문제점과 실습지도를 위한 기관의 사전준비 등을 포함한 환경적 측면, 실습 기관의 부족 등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들 수 있다(이현중, 2002). 또한 실습생에게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할 핵심 내용과 기술, 이를 전

달하는 방법과 기법, 즉 실습지도의 과정과 교육 방법에 대한 규정된 모델의 부족은 현장실습의 총체적 문제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임상 실습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임상 실습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임상 실습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습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문조사하여 그 자료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작업치료(학)과 학생 임상 실습 평가 및 이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연구에는 2004년 졸업예정자가 있는 11개의 대학(교) 중 2학기에 임상 실습을 실시하는 2개 대학(교)을 제외한 9개의 대학(교)(4년제 2개학교, 3년제 7개 학교)의 작업치료(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우편으로 발송 회수하였다. 총 250부 발송하여 213부 회수되었다. 조사기간은 2003년 10월 5일부터 11월 31까지였다.

2. 설문지 내용의 구성

본 연구에서의 작업치료(학)과의 임상 실습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및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는 성별, 학교의 학제, 임상 실습 기간, 실습기관에서의 실습 안내서 마련, 실습기관 및 학교에서의 실습 오리엔테이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 실습 지도에 관한 사항

임상 실습기간 중에 받았던 실습 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는 실습지도 방법(개별/ 집단), 실습지도 빈도, 1회 실습지도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3) 실습지도 내용에 관한 사항

대상자가 임상 실습기간 중에 받았던 실습지도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4) 실습 기관의 실습 환경에 관한 사항

임상 실습기관으로 적합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는 실습기관의 적합성, 체제, 프로그램, 실습기관에서의 실습생에 대한 태도, 실습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 실습 지도자의 타 직원들의 실습에 대한 이해로 구성되었다.

(5) 실습 중에 느꼈던 자신에 대한 견해

대상자가 임상 실습 중에 느꼈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는 실습 중에 느꼈던 갈등과 적응, 이론과 임상 차이, 진로결정, 전문지식습득, 임상 실습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결과 분석은 현재 3, 4년 제1학기에 임상 실습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거한 설문지 213부 중에 202부를 가지고 실시하였다. 사용된 통계프로그램은 SPSS/PC 10.0 버전을 이용하였고, 각 설문 항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는 남자 31명, 여자 171명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3년제가 67%, 4년제가 33%를 차지하였다. 임상 실습기간에 대한 설문 중 4주 동안 이루어진다가 66%로 가장 많았고, 16주 동안 이루어진다가 30%를 나타냈다. 실습기간 동안 62%가 2개의 기관에서 실습이 이루어진다고 대답하였다. 실습안내서는 '준비되었다'가 37%, '준비되지 않았다'가 63%를 차지하였다. 실습기관에서의 '오리엔테이션은 실습시작 전에 이루어진다'가 67%로 가장 많았고, 학교에서의 실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실습전반에 관한 실무자 초청 교육'이 44%, '실습전반에 관한 교수의 교육' 16%, '실습관련 자료 배포' 34%, '없었다' 6.4% 순으로 나타났다(표 1).

2. 실습지도에 관한 사항

실습지도 방법은 집단지도가 43%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실습지도 유형은 기타를 제외한 '정해진 실습시간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가 26%로 가장 많았다. 실습지도 빈도에 대한 질문 중 '매일 이루어진다'가 26%, '매주 이루어진다'가 19%를 차지하였다. 실습 지도의 1회 평균 시간은 30분 미만이 44%,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이 39%를 나타냈다(표 2).

3. 실습지도 내용

실습지도 내용 중 '클라이언트와 일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였다'의 질문에 '보통이다'가 43%, '거의 그렇다'가 31%, '거의 그렇지 않다'가 23%, '매우 그렇다'가 3%를 차지하였다. '실습내용과 관련된 치료적 방법이나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도 받았다'는 항목에 대해 '거의 그렇다'가 27%를 차지하였다. '클라이언트를 다루기 전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받았는가'에 대해 '거의 그렇다'가 31%를 차지하였다. '기관 내에서 실습생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교육받았는가'의 항목에 '거의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빈도(%)	χ^2
성별		
남	31(15.3)	97.03*
여	171(84.7)	
학제		
3년제	136(67.3)	24.26*
4년제	66(32.7)	
실습기간		
2주	1(0.5)	222.95*
4주	133(65.8)	
8주	7(3.5)	
16주	61(30.2)	
기관수		
1기관	8(4.0)	231.41*
2기관	126(62.4)	
3기관	20(9.9)	
4기관	21(10.4)	
5기관 이상	27(13.4)	
실습안내서		
유	74(36.6)	14.44*
무	128(63.4)	
실습안내서 내용		
기관에 대한 소개	53(24.3)	80.71*
실습의 목적 및 분야	16(7.3)	
실습의 구체적인 내용	57(26.1)	
실습 일정	31(14.2)	
기록의 양식과 방법	5(2.3)	
수퍼비전 구조 및 내용	34(15.6)	
실습생의 역할과 유의사항	22(10.1)	
오리엔테이션(실습기관)		
실습시작 전에	144(67)	109.52*
실습기간 중 1회에	35(16.3)	
실습되지 않음	36(16.7)	
오리엔테이션(학교)		
실습전반에 관한 교수의 교육	33(16.3)	67.82*
실습전반에 관한 실무자 초청 교육	88(43.6)	
실습관련 자료 배포	68(33.7)	
없었음	13(6.4)	

*p<0.001, **p<0.01

그렇다'가 32%, '거의 그렇지 않다'가 16%를 차지하였다. '자신의 결점과 부족한 부분을 인정해 주고, 점차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 받았는가'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가 5.4%, '거의 그렇지 않다'가 21%, '보통이다'가 37%, '거의 그렇다'가 27%, '매우 그렇다'가 8.9%를 나타내었다(표 3).

4. 실습기관의 실습환경

'실습기관이 작업치료 실습기관으로 적합하였는가'의 질문에 '거의 그렇다'가 51%로 가장 많이 차

지하였다. '실습생을 지도할 체계가 되어 있다'에 '보통이다' 43%, '거의 그렇다'가 22%로 나타났다. '실습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정비되어 있다'의 항목에 '거의 그렇지 않다'가 28%를 차지하였다. '실습의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여 실습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기관이었다'에 대해 '거의 그렇다'가 33%, '매우 그렇다'가 2.5%를 나타냈다. '실습지도자와 타 직원들도 실습생의 실습에 협조적이었다'의 질문에 '거의 그렇다' 26.2%, '거의 그렇지 않다'가 15%를 차지하였다(표 4).

표 2. 실습지도에 관한 사항

	빈도(%)	χ^2
실습지도 방법		
개별지도	62(30.7)	111.86*
집단지도	87(43.1)	
개별과 집단 지도 모두	30(14.9)	
받지 않음	23(11.4)	
지도유형		
정해진 실습시간에 정기적	52(25.7)	89.83*
실습지도자가 원할 때 비정기적	12(5.9)	
실습생이 원할 때 비정기적	14(6.9)	
상호협의를 한 시간에 정기적	39(19.3)	
기타	85(42.1)	
실습지도 빈도		
매일	52(25.7)	88.26*
격주	12(5.9)	
한 달에 한번	14(6.9)	
매주	39(19.3)	
기타	85(42.1)	
실습지도의 1회 평균소요시간		
30분 미만	89(44.1)	180.62*
30분 이상 1시간 미만	78(38.6)	
1시간 이상 1시간 30분 미만	22(10.9)	
1시간 30분 이상	13(6.4)	

* $p < 0.001$

표 3. 실습지도 내용

	빈도(%)	χ^2
클라이언트와 일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지식을 배움		
전혀 그렇지 않다	0(0)	69.09*
거의 그렇지 않다	46(22.8)	
보통이다	87(43.1)	
거의 그렇다	63(31.2)	
매우 그렇다	6(3.0)	
실습내용과 관련된 치료적 방법이나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도 받음		
전혀 그렇지 않다	9(4.5)	118.20*
거의 그렇지 않다	51(25.2)	
보통이다	85(42.1)	
거의 그렇다	55(27.2)	
매우 그렇다	2(1.0)	
클라이언트를 다루기 전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받음		
전혀 그렇지 않다	8(4.0)	97.75*
거의 그렇지 않다	41(20.3)	
보통이다	80(39.6)	
거의 그렇다	62(30.7)	
매우 그렇다	11(5.4)	
기관 내에서 실습생의 역할, 기능을 지도받음		
전혀 그렇지 않다	9(4.5)	92.36*
거의 그렇지 않다	33(16.3)	
보통이다	79(39.1)	
거의 그렇다	65(32.2)	
매우 그렇다	16(7.9)	
나의 결점과 부족한 부분을 인정해 주고, 점차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 받음		
전혀 그렇지 않다	11(5.4)	68.89*
거의 그렇지 않다	43(21.3)	
보통이다	75(37.1)	
거의 그렇다	55(27.2)	
매우 그렇다	18(8.9)	

* $p < 0.001$

표 4. 실습기관의 실습환경

	빈도(%)	χ^2
작업치료 실습기관으로 적합하였음		
전혀 그렇지 않다	2(1.0)	164.73*
거의 그렇지 않다	19(9.4)	
보통이다	59(29.2)	
거의 그렇다	103(51)	
매우 그렇다	19(9.4)	
실습생을 지도할 체계가 되어 있음		
전혀 그렇지 않다	8(4.0)	83.69*
거의 그렇지 않다	39(19.3)	
보통이다	86(42.6)	
거의 그렇다	44(21.8)	
매우 그렇다	25(12.4)	
실습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정비되어 있음		
전혀 그렇지 않다	10(5.0)	132.70*
거의 그렇지 않다	56(27.7)	
보통이다	95(47)	
거의 그렇다	35(17.3)	
매우 그렇다	6(3.0)	
실습의 의의를 바르게 인식하여 실습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 수 있는 기관이었음		
전혀 그렇지 않다	8(4.0)	124.58*
거의 그렇지 않다	34(16.8)	
보통이다	89(43.1)	
거의 그렇다	66(32.7)	
매우 그렇다	7(3.5)	
실습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		
전혀 그렇지 않다	9(4.5)	131.32*
거의 그렇지 않다	60(29.7)	
보통이다	92(45.5)	
거의 그렇다	36(17.8)	
매우 그렇다	5(2.5)	
실습지도자와 타 직원들도 실습생의 실습에 협조적이었음		
전혀 그렇지 않다	6(3.0)	181.32*
거의 그렇지 않다	31(15.3)	
보통이다	108(53.5)	
거의 그렇다	53(26.2)	
매우 그렇다	4(2.0)	

*p<0.001

5. 실습내용의 적절성

‘실습내용과 범위가 적절하였다’에 대해 ‘보통이다’가 54%, ‘거의 그렇다’가 33% 순으로 나타났다. ‘실습에서 사용한 기록 양식은 적절하였다’는 질문에 ‘거의 그렇다’가 33%를 차지하였다. ‘실습일정이 실습내용을 수행하기에 효율적으로 계획되었다’에 대해 ‘거의 그렇다’가 23%, ‘거의 그렇지 않다’가 21%를 차지하였다. ‘내가 받은 실습에 대해 만족하

는가’의 항목에서 ‘거의 그렇다’가 34%를 나타내었다(표 5).

6. 실습 중에 느꼈던 자신에 대한 견해

‘실습을 잘 수행해 낼 자신이 없어 갈등을 느낀 적이 있다’의 질문에 ‘거의 그렇다’가 35%, ‘매우 그렇다’가 16%를 차지하였다. ‘대학과는 다른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었다’에 대해 ‘거의 그렇다’가

표 5. 실습내용의 적절성

	빈도(%)	χ^2
실습내용과 범위가 적절하였음		
전혀 그렇지 않다	1(0.5)	208.50*
거의 그렇지 않다	23(11.4)	
보통이다	108(53.9)	
거의 그렇다	66(32.7)	
매우 그렇다	4(2.0)	
실습에서 사용한 기록양식은 적절하였음		
전혀 그렇지 않다	4(2.0)	225.97*
거의 그렇지 않다	15(7.4)	
보통이다	112(55.4)	
거의 그렇다	67(33.2)	
매우 그렇다	4(2.0)	
실습일정이 실습내용을 수행하기에 효율적으로 계획되었음		
전혀 그렇지 않다	4(2.0)	175.08*
거의 그렇지 않다	42(20.8)	
보통이다	106(52.5)	
거의 그렇다	47(23.3)	
매우 그렇다	3(1.5)	
내가 받은 실습내용에 만족함		
전혀 그렇지 않다	7(3.5)	144.73*
거의 그렇지 않다	33(16.3)	
보통이다	90(44.6)	
거의 그렇다	69(34.2)	
매우 그렇다	3(1.5)	

*p<0.001

30%, ‘매우 그렇다’가 10%를 나타내었다. ‘대인간의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여 갈등을 느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거의 그렇다’가 21%, ‘매우 그렇다’가 4%를 차지하였다. ‘실습을 통해 진로결정을 위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였는가’의 항목에 ‘거의 그렇지 않다’가 14%를 나타내었다. ‘임상 실습 중 갖게 되는 가장 큰 불만은 무엇인가’에 ‘임상 실습 시간이 적다(26%)’, ‘임상 실습기관의 환경이 좋지 못하다(24%)’,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한다(18%)’,

‘리포트가 많다(16%)’, ‘임상 실습량이 너무 많다(9.1%)’, ‘개인적인 사무가 많다(6%)’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 실습시에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양한 임상 실습프로그램 개발(53%)’, ‘임상 실습생에 대한 임상 실습기관에서 인간적 대우(28%)’, ‘충분한 임상 실습시간 배당(13%)’, ‘임상 실습지도 치료사에 대한 충분한 보수 지급(7%)’ 순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실습 중에 느꼈던 자신에 대한 견해

	빈도(%)	χ^2
실습을 잘 수행해 낼 자신이 없어 갈등을 느낀 적이 있음		
전혀 그렇지 않다	4(2.0)	81.02*
거의 그렇지 않다	27(13.4)	
보통이다	68(33.7)	
거의 그렇다	71(35.1)	
매우 그렇다	32(15.9)	
대학과는 다른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었음		
전혀 그렇지 않다	9(4.5)	55.82*
거의 그렇지 않다	53(26.2)	
보통이다	61(30.2)	
거의 그렇다	58(28.7)	
매우 그렇다	21(10.4)	
대인간의 의사소통기술이 부족하여 갈등을 느낀 적이 있음		
전혀 그렇지 않다	16(7.9)	77.26*
거의 그렇지 않다	68(33.7)	
보통이다	67(33.2)	
거의 그렇다	43(21.3)	
매우 그렇다	8(4.0)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느낀 적이 있음		
전혀 그렇지 않다	1(0.5)	144.63*
거의 그렇지 않다	24(11.9)	
보통이다	93(46.0)	
거의 그렇다	67(33.2)	
매우 그렇다	17(8.4)	

표 6. 실습 중에 느꼈던 자신에 대한 견해(계속)

	빈도(%)	χ^2
실습을 통해 진로결정을 위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였음		
전혀 그렇지 않다	1(0.5)	152.12*
거의 그렇지 않다	24(14.4)	
보통이다	92(45.5)	
거의 그렇다	70(34.7)	
매우 그렇다	10(5.0)	
임상 실습 중 갖게 되는 가장 큰 불만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함	46(19.1)	47.12
임상 실습 시간이 적음	63(26.1)	
임상 실습량이 너무 많음	22(9.1)	
임상 실습기관의 환경이 좋지 못함	58(24.1)	
리포트가 많음	38(15.8)	
개인적인 사무	14(5.8)	
임상 실습시에 개선해야 할 사항		
임상 실습지도 치료사에 대한 충분한 보수 지급	15(6.5)	195.28*
충분한 임상 실습시간 배당	29(12.5)	
임상 실습생에 대한 임상 실습기관에서 인간적 대우	66(28.4)	
다양한 임상 실습프로그램 개발	122(52.6)	

*p<0.001

IV. 고 찰

임상 실습이란 작업치료를 실제로 클라이언트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정과 방법을 훈련시켜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학생들의 생각과 자세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중요한 과정이다. 학생들은 임상 실습을 통하여 작업치료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통합하여 활용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치료원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작업치료를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다른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클라이언트를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을 도우며 클라이언트의 가족을 위한 교육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강의실에서 배운 작업치료의 이론적 지식과 실무를 통합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서 임상 실습은

장차 작업치료사로 성장할 학생들의 학업성취 및 임상수행능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임상 실습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작업치료 임상 실습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4년 작업치료(학)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여 임상 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연구참여자들이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었기에 향후 작업치료 임상 실습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충분한 의의를 가질 것으로 본다. 연구결과와 임상 실습지도의 경험을 근거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실습기관의 적합성을 포함한 실습환경에 관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면, ‘실습기관이 작업치료 실습기관으로 적합하였는가’의 질문에는 ‘거의 그렇

다'가 51%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29.2%)'와 '매우 그렇다(9.4%)'를 합하여 실습기관의 적합성에 대하여 89.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작업치료학생들은 실습지도자와 타 직원들이 임상 실습에 협조적이었다고 느끼지만(79.7%), 실습생을 위한 프로그램의 정비와 지도 체계, 실습생 이용시설과 설비에 대해 20~30% 정도가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김현주(1998)가 보고한 물리치료학생의 실습환경 만족도(5점 만점에 평균 2.778점)나 강익화와 김혜순(1994)이 보고한 간호학생의 실습환경에 대한 만족도(5점 만점에 평균 2.74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최근 작업치료(학)과의 급격한 신설로 인한 작업치료 학생수의 증가는 이미 임상 실습 기관에서 실습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이런 현상은 수년 내에 최악의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2004년 2월 졸업자 약 290명)는 임상치료사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분에 작업치료 임상교육이 일정수준의 실습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항목에서 80.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는데, 실습의 내용과 범위의 적절성, 기록양식의 적절성, 실습일정의 효율성에 대한 문항에서도 유사한 수준에서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익화와 김혜순(1994)은 임상 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 중에서 실습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변수가 가장 큰 설명력이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실습내용과 범위에 대한 만족과 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치료 학생들이 임상 실습 중 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견해와 관련된 항목들을 통하여 학생들의 임상 실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알아보고자 실시한 문항에서는 '실습을 잘 수행해낼 자신이 없어 갈등

을 느낀 적이 있다'에 '거의 그렇다'가 35%, '매우 그렇다'가 16%를 합하여 51%가 상당한 갈등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사 항목인 '대학과는 다른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었다'와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느낀 적이 있다'에서도 각 항목에서 40% 이상의 학생들이 임상 실습에 어려움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생의 임상 실습에 대한 중압감에 대한 김미예(1981)의 보고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호학생들은 이론 강의에는 20%만이 중압감을 느낀데 반해 임상 실습에 대하여는 80%가 중압감을 느끼며, 임상 실습의 엄격성과 이론지식 적용에 대한 자신감 결여가 주요 요인이라고 하였다.

신경림(1996)은 간호학생들이 실습기간 동안 기록한 임상일기와 연구자의 참여관찰, 1, 2차 심층면담을 통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체험한 과정이 크게 3단계로, 즉 환상기(실습초기), 혼란기(실습기 현실 충격, 이론과 수행의 괴리감, 간호정체성, 인간존엄성 상실, 다양한 역할모델로 인한), 그리고 도전기(실습말기)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실습 시작 전에 실습환경에 관련된 사전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현실적 충격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능력에 부정적인 변화 요소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이 시기의 학생들은 청년기 성장발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신의 존재에 관한 질문과 새로운 학습상황으로 인한 혼란감으로 인해 타 학과 학생보다 더욱 힘들기 때문에 임상교수들의 상담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임상 실습시에 임상지도 교수와 학생의 밀착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또 간호학생의 이론과 수행의 괴리감을 줄일 수 있는 간호사들의 지지가 필요하고, 그들의 간호수행에도 변화가 요구된다고 제언하였다. 김혜순(2002)도 간호학생의 임상 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수행능력과는 유의한 순

상관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는데, 작업치료학생에서도 유사한 특성을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작업치료학생들의 임상 실습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여 임상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김영숙(2000)은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 실습 성취도에 대한 연구에서 임상 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실습기관의 결정방식이 본인이 결정하였을 때(28.1%)’, ‘타 대학 실습생이 존재하지 않을 때(29.4%)’, ‘임상 실습시간 수가 많을 때(28.3%)’, ‘학생평가 횟수가 1회(45.3%)’일 경우와 ‘실습의 기회가 다양할 때(45.5%)’, ‘실습기관의 교통편이 편리할 때(32.9%)’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임상 실습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임상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려될 필요가 있다.

작업치료학생들은 ‘실습을 통해 진로결정을 위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였는가’의 항목에 8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임상 실습시에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양한 임상 실습프로그램 개발(53%)’과 ‘임상 실습생에 대한 인간적 대우(28%)’, ‘충분한 임상 실습시간(13%)’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교육과정에서는 강의에서 얻은 지식을 대상자에게 적용시켜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를 실시하고, 중재결과를 평가, 재조정하는 과정을 습득하게 된다(성명숙, 정금희, 장희정, 1998).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정은 이론교육과 임상 실습 교육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임상 실습 교육이 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이원희, 김소선, 한신희, 이소연, 김기연, 1995).

임상 실습은 작업치료학생의 향후 업무수행능력을 결정짓는 주요한 교육과정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바람직한 임상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대학과 임상지도자간의 더욱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또한, 학생들에

게는 임상 실습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낮은 수준의 임상 실습(참여관찰)의 기회를 늘림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이고 임상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방법의 모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작업치료 교육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향후 임상 실습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작업치료 교육의 발전과 작업치료사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임상 실습은 실제로 클라이언트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정과 방법을 훈련시켜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학생들의 생각과 자세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 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실습기관의 적합성을 포함한 실습환경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89.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지도자와 타 직원들이 임상 실습에 협조적이었다고 느끼지만 실습생을 위한 프로그램의 정비와 지도체계, 실습생이용 시설과 설비에 대해 20~30%가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에 대한 만족도 측정에서 80.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임상 실습에 대해 학생들의 51%가 갈등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실습학생의 85%가 실습을 통해 진로결정을 위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작업치료학은 임상학문이므로 임상실습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하겠다.

지금까지는 작업치료 교육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향후 임상 실습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작업치료 교육의 발전과 작업치료사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익화, 김혜순. (1994). 간호학생이 지각한 수간호사의 리더십과 임상 실습 만족도와의 관계연구. *성인간호학회지*, 6(2), 144-155.
- 김미예. (1981). 간호학생의 임상 실습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경북의대잡지*, 22(2), 518-525.
- 김영숙. (2000).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3(1), 147-160.
- 김현주. (1998). 일개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임상 실습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10(1), 173-179.
- 김혜숙. (2002). 간호학생의 임상 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6(1), 64-76.
- 박오장. (1978). 간호학생 임상 실습 평가에 대한 수간호원의 태도조사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 박현옥. (1982). 간호학생이 임상 실습장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 성명숙, 정금희, 장희정. (1998). 임상간호교육 평가 도구개발. *한국간호교육학회지*, 4(2), 172-186.
- 신경림. (1996). 간호학생의 첫학기 임상 실습 체험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8(1), 156-168.
- 이숙자. (1980). 간호학생의 임상 실습 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0(2), 41-52.
- 이원희, 김소선, 한신희, 이소연, 김기연. (1995). 임상 실습 교육개선을 위한 일 실습지도자 활용 모델(preceptorship model)의 적용 및 효과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25(3), 581-596.
- 이현중. (2002). 유아교육 예비교사가 교육실습과정에서 느끼는 갈등연구.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 조인경. (1993). 교사들이 인식한 유치원 교육실습 지도교사의 역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 천은숙. (1995). 교육실습을 통한 교사사회화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
- SPSS. (2001).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sion 10.0) [Computer software]. Chicago: Author.

Abstract

The Perception of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on the Clinical Fieldwork

Kim, Jin-Kyung, M.S., O.T.,

Park, So-Yon, M.P.H., O.T.,

Lee, Teak-Young, M.P.E., O.T.,

Kang, Dae-Hyuk, M.Sc., O.T.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Hanseo University

Objective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oblem areas in the current clinical fieldwork of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which may guide the development of an effective strategy for managing clinical fieldwork for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Methods : A close-ended self-reporting questionnaire was developed by the researchers and sent to 9 occupational therapy schools (2 four- year programs and 7 three-year programs) via mail. This survey was conducted between October 5th and November 31st in 2003 and 202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senior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In analyzing data, chi-square test was used for categorical variables.

Results : 89.9% of respondents was satisfied with the environment of the fieldwork places. 20-30%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were not satisfied with the programs and supervision systems for fieldwork students even though the staff members of other disciplines were supportive in general. 80.3% of the respondents showed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general experience of the fieldwork. Although 85%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were obtaining information and knowledge for their professional carrier through the fieldwork, 51%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had negative experiences during the fieldwork.

Conclusion :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urvey, it can be inferred that the structure of the fieldwork education needs to be more systematically organized in order to train the well-prepared entry-level occupational therapists. Since occupational therapy is classified as an applied science, the importance of clinical fieldwork cannot be over-emphasized in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further research on clinical fieldwork be carried out to systematically guide the clinical fieldwork of occupational therapy.

Key Words : Clinical fieldwork, Education,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